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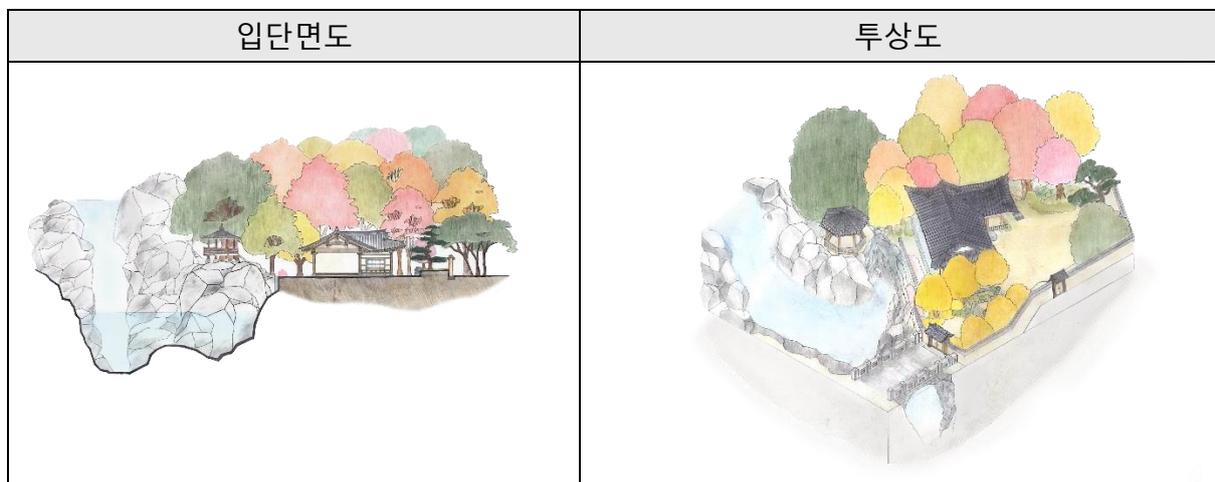
“설계수업”이 도대체 어떤 수업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, 제가 1학년 때 했던 설계 사진을 첨부해둘게요. 사실 2학년부터는 대부분의 이미지가 라이노, 스케치업과 같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렌더하고 포토샵으로 보정하기 때문에 실사 느낌의 사진이 대부분이에요. 아래 이미지는 프로그램을 배우기 전 1학년 때 진행한 설계수업 작품이라는 점 알려주세요!

1학년 2학기에 진행한 첫 설계 프로젝트예요. 이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도면(입단면도, 평면도, 투상도)을 손으로 그렸답니다.

(1학년 1학기 때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 있어요!)

어떤 고객을 위한 어떤 공간인지 모든 컨셉을 자유롭게 팀원과 정했고, 그 컨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공간 구성, 식재 배치 등을 고민하여 한 학기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. 최종 프로젝트 발표 후 모형까지 함께 만들어서 전시해요.

저와 팀원은 ‘은퇴한 작가가 서울을 떠나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 수 있는 별장’이라는 컨셉을 잡고, 마치 선조들이 별서를 만들어 숙세를 떠나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겼듯 한옥 건축물을 함께 이용해서 비슷한 공간 연출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.



평면도



최종 ppt 로 발표를 진행하고, A1 사이즈의 패널을 만들어서 모형과 함께 전시해요.

패널에는 한 학기동안 이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내용들을 담아요. 대상지 개요, 컨셉, 설계 요소, 식재 계획, 평면도, 동선계획 등 이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담긴답니다. 위 사진은 최종 모형을 제작하고 찍어둔 사진이에요.

최종 모형 전시

